

『하인즈 워드』 모자 접견 말씀자료

격려 / 치하

1. 어려운 역경을 극복, 미국의 영웅이 된 하인즈 워드 격려

- 하인즈 워드의 성공 → 혼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「인생의 교과서」
- 특히, 슈퍼볼 MVP이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몸가짐과 밝은 미소,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은 한국적 미덕
 - 스포츠 스타로서만 아니라 인격적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

2. 자식을 위한 희생, 하인즈 워드 어머니의 모성애에 대한 치하

- 하인즈 워드의 화려한 성공은 이국만리 낯선 타향에서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이 밑바탕
 - 하인즈 워드의 성공은 곧 어머니의 성공 / 치하
- (어머니에게 질문) 하인즈 워드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?
 - (답변 후) 공감의 표시

3. 어려울 때 힘이 되지 못한 조국의 미안함 표시

- TV에서 하인즈 워드의 팔뚝에 한글로 쓰여진 문신을 보고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 마음
 - (하인즈 워드에게 질문) 문신은 언제,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인가?
- 우리는 두 분을 위해 해준 것이 없는데 한국에 대해 애뜻한 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 고마우면서도 한없는 회한이 밀려듬
 - ※ '내가 누구인지는 결코 바꿀 수 없으며 나는 절반의 한국인임을 축복으로 생각함'(’06.2.11 SBS 인터뷰)
 - 우리사회의 이기심과 닫힌 마음 → 하인즈 워드와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혼혈인들에게 힘든 가시밭길

정책 메시지

4. 혼혈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중

- 부끄럽지만 하인즈 워드의 성공이 혼혈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([혼혈인 등의 유형 및 실태 - 붙임1](#))
-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, 정부 차원에서도 『**열린 다문화 사회 구현**』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

혼혈인 등 소수인종 지원대책(안)

- ① 차별금지 및 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
 - 차별금지법 제정, 출입국관리법·아동복지법·병역법 등 개정, 지원체계 확립
- ② 인권친화적 제도 운영
 - 담당공무원 다문화·인권교육 강화, 출입국 시스템의 인권친화적 개선 등
- ③ 분야별 생활안정대책
 - 보건·의료, 혼혈아동에 대한 교육·상담, 훈련·취업, 생계 지원책 마련 등
- ④ 혼혈인 등의 유형별 지원방안 강구
 - 국외의 혼혈인,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
- ⑤ 사회적 인식 개선
 - 학교·사회교육에서 다문화교육 강화, 다문화 캠페인·홍보, 혼혈아동 사회적응 지원(후견교사제, 한국어교실, 공부방, 외국문화행사 지원 등)

5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, 뿌리깊은 순혈주의 극복

-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의 허구 → 역사적으로 수 많은 외침의 역사, 어느 누구도 순수혈통이라고 확신 불가
- [국제결혼 급증, 이주노동자 확대\(붙임2\)](#) 등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 → 단일민족, 순수혈통 중심사고는 세계화시대에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극복해야 할 과제
 - ※ '04년도 총 결혼건수의 **11.4%**가 국제결혼, 특히 농촌의 경우 **27.4%** 차지
 - ※ '04년말 기준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수 : **346천명**
 - 편협되고 차별적인 사고 → 결코 세계중심에 설 수 없음
- 혼혈인 등에 대한 『**사회적 인식 개선**』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

마 무 리

5. 결론 및 당부사항

- (하인즈 모자에게 건의사항 또는 소회 피력 요청/경청)
- “피는 물보다 진하다”는 속담 → 피부색·외모의 차별 의미 아님
 - 혼혈인도 분명한 우리의 형제·자매들이며, “또 다른 우리”라는 『열린 마음』과 『따스한 눈빛』이 필요
-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혼혈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
 - 그들의 실상을 직접 느끼고, 함께 하는 방법을 찾겠음
- 하인즈 워드와 같은 성공사례가 “혼혈인”의 “특별한 성공”으로 부각되지 않는 사회
 - “그들”이 아닌 “우리들” 중의 한 명의 위대한 성공으로 축하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다함께 노력

< 불 임1> 혼혈인 등의 유형 및 실태

1. 혼혈인 등의 유형

- ① **주한미군 관련 혼혈인** : 한국전쟁 전후의 혼혈인 세대(1세대), 60~70년대 세대(2세대), 80년대 이후 세대(3세대), 혼혈인의 2세 세대로 구분
 - ※ 1~2세대는 ’82.8월 미국의 이민특례법으로 대부분 이민, 현재 국내거주 혼혈인 수는 400~500여명(2003, 인권위 자료). 필벽재단측은 5,000여명 추정
- ② **기지촌 외국여성 2세 혼혈인** : 기지촌 여성이 외국여성으로 대체되면서 이들과 한국인·이주노동자·미군 사이에서 혼혈자녀 등 출생
 - ※ 필리핀·구소련 출신 여성이 대다수. 기지촌 내국여성 비율은 15% 내외 추정
- ③ **이주노동자 2세** : 40여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동거·결혼을 통해 2세를 갖거나, 본국자녀를 입국시키는 사례 증가
 - ※ 이주노동자간 국내출생 자녀는 신분노출을 우려, 대부분 미신고. 숫자파악 곤란
 - ※ ’05년말 기준 15세 이하 불법체류자(6,471명) 중 미국·일본 등 선진국 국적자 제외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,500여명으로 추정(법무부)
- ④ **외국거주 한국인의 현지 2세 혼혈인** : 원양어업 선원 및 외국 일시체류자(주로 동남아)와 현지여성간 자녀를 방치, 국가이미지 악화
- ⑤ **베트남전쟁 관련 한국인 2세 혼혈인** :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인과 현지여성간 출생 자녀들로 철수 후 방치된 사례
 - ※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, 현지공관보고(’06.3)는 3,000명 수준 추정. 현재 대부분 30~40대로 현지사회에 흡수·동화되어 베트남 국민으로 생활

2. 국내 혼혈인 현황

- 현재 국내에만 **35천명** 정도의 혼혈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(2003년 필벽재단)
 - 미국계 5천여명, 아시아계(코시안) 3만여명 추정
 - ※ 국내 혼혈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통계는 없는 실정

3. 혼혈인 등의 실태

- 주한미군 혼혈인 대부분은 출생시부터 전생애,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**최하위층으로 전락**
 - 학교·교육에서부터 차별을 경험
 - 2/3 이상이 놀림(73.3%)과 따돌림(64.4%),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(61%)를 경험, **42.2%가 중간에 학교를 포기**
 - ※ 인권위, 2003년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(혼혈인 45명 면접·설문조사)
 - 취업·생계·주거에서의 차별로 절대적 빈곤 상황
 - 18세 이상 혼혈인의 **2/3 가량이 실업상태**
 -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**101만원 정도**(출처 : 인권위자료)
 - 주택 소유 비율은 **17%**(일반가구의 경우 54.2%)에 불과
 - 사회적 차별에 의한 자존감 상실
 - 반복적·누적적 차별 경험으로 자존감을 상실하고, 그 결과 **42.2%가 자살시도를 경험**(출처 : 인권위자료)
- 본래적 의미의 혼혈인은 아니나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도 혼혈인과 동일한 차별문제에 직면
 - 불법체류자의 신분상 약점과 저임금 등으로 자녀양육상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
 - ’05년말 기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취학적령기(만15세 이하) 자녀는 2,500여명으로 추정되나 재학생은 **148명(5.9%)**에 불과
 - ※ ’03.1.19 ‘UN아동권리협약’의 취지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법체류자 자녀도 취학이 가능
 - 여성인 경우 성희롱·성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신·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 증가
 - 여성이주노동자의 **12%가 강간을 경험**, 비한국계 불법체류 여성 이주노동자의 **87%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**(2002, 인권위)
 - 임신·출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

[☞ 본문으로](#)

< 볼 임2 > 관련통계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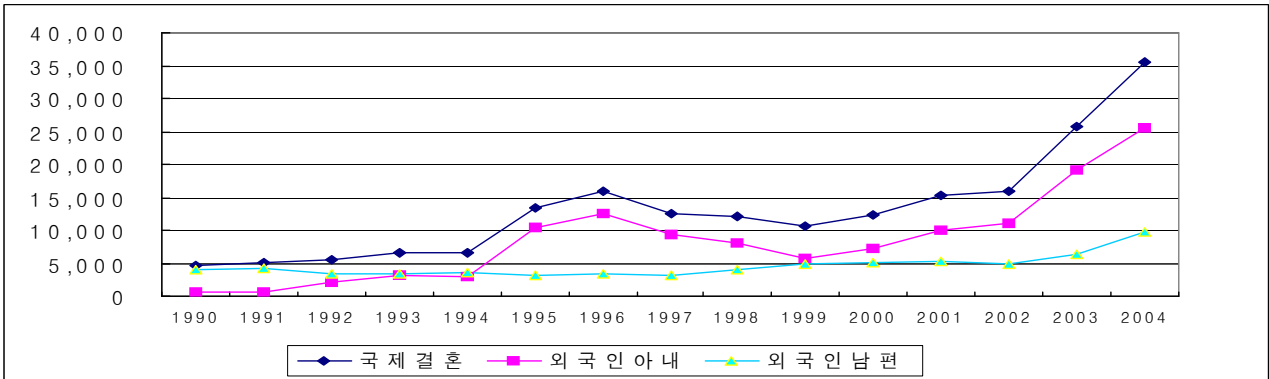
1. 국제결혼 현황

국제결혼 건수

연도	총 결혼 건수	국제결혼		외국인 아내		외국인 남편	
		건수	%	건수	%	건수	%
1990	399,312	4,710	(1.2)	619	(0.2)	4,091	(1.0)
2000	334,030	12,319	(3.7)	7,304	(2.2)	5,015	(1.5)
2004	310,944	35,447	(11.4)	25,594	(8.2)	9,853	(3.2)

*자료: 통계청 「인구동태」, ’05.6

국제결혼 추이



*자료: 통계청 「인구동태」, 2005.6

연도별 농촌지역 국제결혼 비율

연도	2001	2002	2003	2004
농촌지역 총 결혼(건수)	8702	8175	6497	6,629
농촌지역 국제결혼(건수)	974	974	1370	1,814
농촌지역 국제결혼 비율(%)	11.2	11.9	21.1	27.4

*자료: 통계청 「인구동태」, 2005.6

2. 이주노동자 현황 (’05년말 기준)

구분	전체	합법	불법
인원(명)	345,579	164,787	180,792

*자료: 법무부

[본문으로](#)